



보도시점: 2026. 4. 15.(수) 12:00 배포: 2026. 4. 15.(수) 08:30

“옛 전매청 폐청사, 54년 만에 철거된다!” 남은 부지는 주민들의 품 안으로

- 지역 흥물이었던 옛 전매청 건물, 안전사고 및 범죄 우려로 집단민원 제기
- 오늘(15일) 현장조정회의 개최, 올해 9월까지 폐청사를 철거하기로 합의

□ 건축된 지 54년 된 옛 전매청(현 담배인삼공사) 건물이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정일연, 이하 국민권익위)의 조정을 통해 철거된다.

국민권익위는 오늘(15일)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, 1972년 건축된 옛 전매청 건물을 철거한 후, 남은 부지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관계기관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.

□ 사무실 용도의 2층 건물과 관사 용도의 단층 건물로 이루어진 이 폐청사(연면적 445.95㎡, 대지면적 1,491㎡)는 1972년에 전매청 건물로 건축되어 사용되다가 그 역할을 다하고 용도폐지가 되어 1997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었다. 그 후 일정 기간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임대되었으나 2014년 이후부터는 어떤 쓰임새도 없이 방치되었다. 특히, 해당 건물과 인접하여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.

□ 이에, 광양시 광양읍 주민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폐청사가 흉물스럽다며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재산 관리 등을 이유로 철거가 진행되지 않자, 주민 2,359명은 폐청사 부지 내 관리되지 않는 수목과

잡초로 인한 주민 불편과 노후화된 건물의 안전 및 범죄 우려 등을 이유로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.

- 국민권익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·광양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러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와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, 철거의 필요성 및 철거 후 부지 활용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였다. 그 결과, ▲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올해 9월 30일까지 이 폐청사를 철거하고,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 전까지 광양읍 이장협의회가 대부분을 받아 주민 친화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, ▲광양시는 조속한 철거 진행에 협조하고 매각 때까지 부지의 유지·관리를 담당하며, 향후 공원 등 주민들을 위한 공공 용도로 활용되도록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다.
-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“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폐청사가 철거되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,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.”라며, “폐청사 철거 후 남은 부지가 주민들을 위한 공공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조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집단갈등조정기획과 (지역생활집단민원팀)	책임자	팀 장	정덕양 (044-202-1219)
		담당자	조사관	구교전 (044-202-1214)



#국민권익위#고충처리#고충민원#현장조정회의#광양시#한국자산관리공사#폐청사#전매청#용도폐지#광양읍사무소

□ 옛 전매청 건물 개요

- 위치 :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494-1(대지), 499(대지)
- 건립연도 : 1972년
- 건물규모 : (사무실) 2층 / (관사) 단층
- 연 면 적 : 445.95m²
- 대지면적 : 1,491m²
- 토지소유/관리기관 : 국가(재정경제부) / 한국자산관리공사

□ 지도 및 현장사진

